CONDERI

FOCUS COLUMN 14 | 오피니언

1조 달러 수출과 48개월 청년 실업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구조에 대하여

11월 19일 오후 2시 9분 38초, 한국의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같은 달 발표된 고용동향에서 청년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 나라의 성장 지표와 고용 지표가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칼럼은 두 기록이 모순이 아니라 한 구조의 양면이라는 가설을 검토합니다.

1조 달러
연간 수출(세계 4번째)

42.7%
수출 중 반도체 비중

−19.6만
청년 취업자(48개월 연속 감소)

이 칼럼의 명제

**성장은 반도체가 만들고,
다음 10년은 검증 가능한 역량이 지탱한다**

수출 1조 달러의 42.7%가 반도체이고, 그 산업은 사람을 가장 적게 쓴다. 성장의 과실을 일자리로 바꾸는 경로는 학위와 연수가 아니라 수행 과업과 검증 기록에서 시작된다.

I. 문제 제기

Two records in the same week

문제 제기 — 두 개의 기록이 같은 날 확인됐다

한 경제가 같은 주에 두 개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수출 1조 달러, 다른 하나는 청년 취업자 48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전자는 세계 4번째, 1964년 1억 달러에서 62년 만에 1만 배가 된 기록입니다. 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감소세이고, 10월 청년 고용률 42.9%는 2020년 10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값입니다.

첫 번째 기록

수출 1조 달러. 반도체 3,968억 달러(1~10월)가 견인했고, 컴퓨터·석유제품·화장품이 뒤를 받쳤습니다. 산업부는 연간 1조1,700억 달러를 전망합니다.

두 번째 기록

청년 취업자 19만6,000명 감소. 전체 취업자는 13만9,000명 늘고 15~64세 고용률은 70.4%로 10월 기준 최고인데, 청년만 4년째 줄고 있습니다.

두 기록을 잇는 변수

반도체입니다. 수출을 끌어올린 산업이 청년을 가장 적게 고용하는 산업이고, 두 기록의 간격은 그 사실에서 나옵니다.

1조 달러
연간 수출(11-19)

42.7%
수출 중 반도체

−19.6만
청년 취업자(10월)

70.4%
15~64세 고용률

왜 지금 이 질문인가

AI가 업무 현장에 들어온 지 4년, 한국의 수출 구조는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됐고, 청년 고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변화가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는 것이 이 칼럼이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원인을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세 변화가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라면 처방도 하나의 정책으로는 닿지 않습니다.

이 칼럼의 질문 성장과 고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가정이 2026년에 깨졌다

II. 근거 1 — 성장의 재료가 바뀌었다

The growth driver hires the fewest people

근거 1 — 반도체는 사람을 가장 적게 쓰는 성장 동력이다

수출 1조 달러의 성격을 규정하는 숫자는 42.7%입니다. 1~10월 반도체 수출 3,968억 달러가 전체 수출의 42.7%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 24.4%에서 18.3%포인트 올라간 값입니다. 20대 품목 중 16개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증가율의 대부분은 메모리 단가에서 나왔습니다.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에서 반도체는 140.7로 6분기 연속 가장 높았고, 생활용품은 79.0으로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그 산업의 고용 구조

한국은행은 최근 4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 28만5,000개 가운데 26만8,000개(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업의 청년 취업자는 6만200명(24.3%) 줄었는데, 업종 전체 취업자는 9,300명 늘었고 30세 이상은 6만9,500명 늘었습니다. 업종 내 청년 비중은 21.7%에서 16.3%로 낮아졌습니다. 산업이 성장해도 그 성장이 청년을 고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구분	변화	해석
반도체 수출(1~10월)	3,968억 달러	기존 연간 최대치의 약 3배
전체 취업자(10월)	+13만9,000명	4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
청년 취업자(15~29세)	−19만6,000명	48개월 연속 감소
정보통신업 청년	−6만200명(24.3%)	업종 전체는 +9,300명

단가가 만든 기록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석유제품 수출은 1~10월 575억 달러로 늘었지만, 수출 단가가 t당 681달러에서 1,105달러로 62%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도 물량과 단가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단가가 만든 기록은 단가가 꺾이면 같은 속도로 사라집니다. 1조 달러를 다음 해에도 유지하려면 물량과 품목 다변화가 함께 필요합니다.

III. 근거 2 — 밀려난 자리와 남은 습관

Where the youth went, and what they kept

근거 2 — 청년은 2차 노동시장으로 밀려났다

한국은행의 진단은 더 정교합니다. 과거 청년 고용 부진은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대기하면서 실업률이 오르는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1차 시장의 수요가 정체되자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2차 시장으로 진입하고, 그 결과가 실업률이 아니라 고용의 질 저하로 나타납니다. 임시·일용직 비중이 늘고, 2차 시장에 누적된 청년이 다시 1차 시장으로 이동할 경로는 줄었습니다.

연령별로 갈린 충격

20~24세 취업자는 11만9,700명 줄었고, 그 3분의 2인 7만9,800명이 고용률 하락 몫이었습니다. 20~24세 고용률은 40.0%로 1년 새 3.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업종별로 갈린 충격

숙박·음식점업 청년 취업자는 13만7,000명 줄어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였고, 제조업은 7,000명, 건설업은 4만2,000명 줄었습니다. 늘어난 곳은 보건·복지(24만9,000명)와 운수·창고(4만8,000명)입니다.

정책의 크기

2027년 예산안에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145억원(750명), K디지털트레이닝 6,089억원(4만7,000명)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단계이므로 규모는 국회 심의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같은 달 에듀플렉스가 중3~고3 학생 904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한 달간 공부에 AI를 쓴 학생은 76.8%, AI가 만든 답을 거의 그대로 옮겨 쓴 경험은 70.5%였습니다. AI 사용 후 능력이 약해졌다고 느낀 비율은 83.1%, 그중 사고력 저하가 34.9%였습니다. 반면 매일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있는 학생의 복사 경험은 21.4%로, 습관이 없는 학생(44.9%)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은 설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IV. 반론과 반증 조건

What would prove this column wrong

반론 — AI 탓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 진단에 반대하는 근거도 분명합니다. 첫째, 인구입니다. 청년 인구 자체가 줄고 있어 취업자 감소의 일부는 인구 효과입니다. 둘째, 채용 관행입니다.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산은 AI 이전부터 진행된 변화입니다. 한국은행도 AI가 경력 사다리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약해지던 사다리를 더 빠르게 무너뜨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셋째, 산업 구조입니다. 성장이 IT 제조업에 집중되면서 상용직 고용창출력이 낮아진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칼럼이 스스로에게 다는 반증 조건

좋은 주장은 결론이 아니라 반증 조건을 남깁니다. 이 칼럼의 가설이 틀렸다고 판정할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년 고용이 반등하는데도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의 청년 고용만 회복되지 않으면 가설은 약해집니다. 둘째,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는데 청년 고용이 개선되면 성장과 고용의 연결이 다른 경로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정보통신업 청년 고용이 업종 성장과 함께 회복되면 구조적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 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반론이 맞다면

처방은 교육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과 산업 간 이동 경로입니다. 한국은행도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칼럼이 맞다면

처방은 역량의 증명 방식입니다. 학위와 경력 연수가 아니라, 실제로 수행한 과업과 그 결과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반론을 받아들이면 처방이 달라진다

원인이 교육 부족이라면 교육을 늘리면 됩니다. 원인이 구조라면 교육만으로는 닿지 않습니다. 이 칼럼은 두 원인이 겹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의 순서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구조를 고치지 않은 채 교육을 늘리면, 교육을 받은 청년이 갈 곳이 없는 상태를 더 빠르게 만들 뿐입니다.

반론 결론은 처방을 가른다 — 원인이 교육인지 구조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진다

V. 대안과 결론

From record exports to verifiable capability

대안 — 검증 가능한 역량이 노동시장의 통화가 되어야 한다

두 기록을 잇는 구조를 인정한다면, 처방은 하나로 모입니다. 성장의 과실을 일자리로 전환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 경로의 첫 단추는 역량의 증명 방식입니다. 지금 노동시장은 학위와 경력 연수로 사람을 읽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그 두 지표가 능력을 가장 늦게 반영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했고, 어떤 검증을 통과했는지가 더 정확한 신호입니다.

기업이 할 일

채용 기준에 수행 과업과 검증 절차를 명시합니다. 무엇을 맡길지, 어떻게 검증할지,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게 무엇을 줄지를 문서로 정합니다.

교육이 할 일

수료율이 아니라 산출물의 검증 통과율을 지표로 삼습니다. AI를 쓰는 것이 아니라 AI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결과를 남기게 합니다.

정책이 할 일

청년 AI 첫 일자리 사업의 성과 지표를 채용 건수가 아니라 6개월 뒤 직무 유지율과 검증 통과율로 설정합니다. 예산이 결과에 묶여야 합니다.

이 칼럼의 결론

1조 달러는 자랑할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청년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10년의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성장의 과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의 첫 화면은 채용 공고이고, 첫 문서는 검증 기준입니다. 기록을 만든 산업과 기록을 견딜 사람을 따로 설계하지 않는 한, 다음 1조 달러도 같은 자리에서 멈출 것입니다.

결론 성장은 반도체가 만들고, 다음 10년은 검증 가능한 역량이 지탱한다